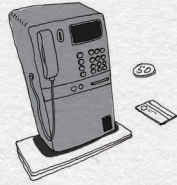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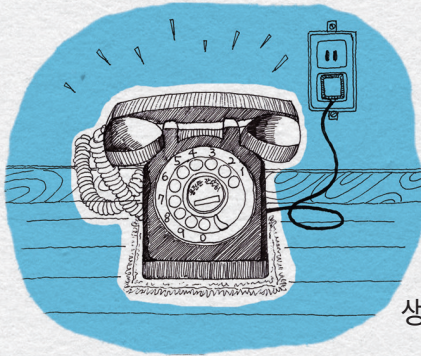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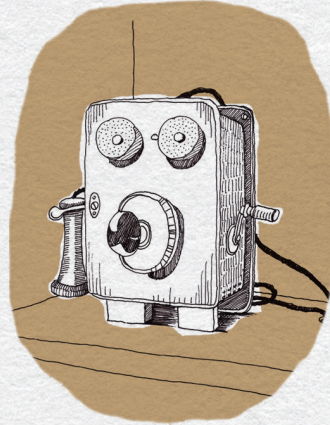


그때 그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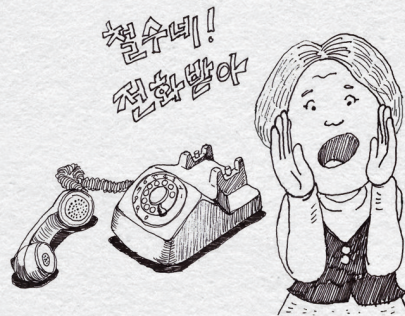


전화기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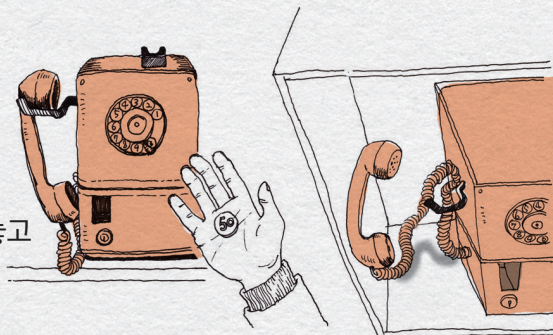
제가 어릴적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곳에 검정색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옆면에는 돌려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핸들이 있었고 교환수가 연결해 주는 전화였죠. 마을사람 모두가 급한 일이 생기면 사용할수 있는 고마운 전화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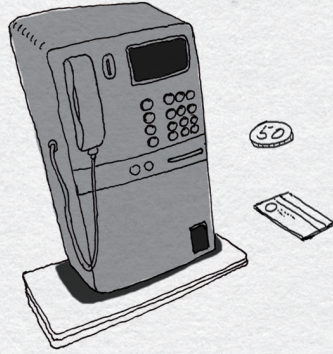


시간이 흐른후 앞면에 다이얼이 있는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집은 아니고 주인집에 생겼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 주려고 힘차게 부르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고함소리가 기억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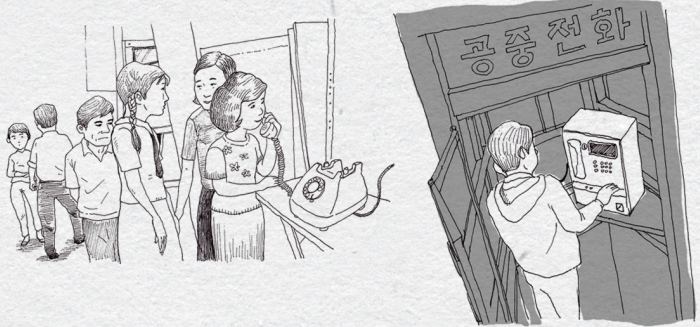


동네 구멍가게에 공중전화가 생겼습니다. 주황색 전화기에 동전이 들어가던 전화기였습니다. 제 기억엔 20원이면 한번 통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던 전화기여서 50원을 넣고 통화가 끝나면 수화기를 끊지않고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나왔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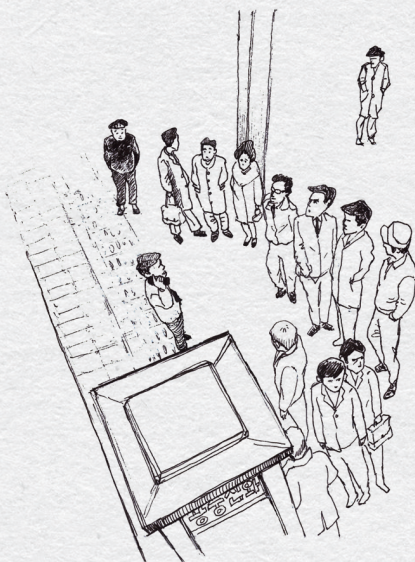


거리의 공중전화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젠 동전뿐 아니라 공중전화 카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보안카드 같이 얇은 카드였죠.
공중전화박스에 문도 생겼습니다.
이젠 뒷사람이 통화내용을 들을까봐 소곤소곤 대화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다이얼 대신에 버튼으로
누를수 있는 최신형입니다. 괜히 부자가 된 느낌이네
요.

우리집 전화기가 바뀌었습니다.
벽돌만한 크기의 무선전화기 입니다.
집안에서 들고 다니며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삐삐와 씨티폰이 생겼습니다. 공중전화박스엔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씨티폰으로
전화거는 아저씨가 부러웠습니다.

이후엔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공중전화박스엔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